



가축개량기술정보

社団法人 韓國國家畜人工授精師協會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64
(축산기술연구소 내)

TEL : (0331) 295-9401 / 296-0637

FAX : (0331) 296-0637

발행인:안장호

편집인:방효범

자력更生(自力更生)



회장 안 장 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다”는 신념으로 출발했던 무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된 고통을 감내 하시면 서도, 협회를 위하여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랑에 정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보수 교육과 수정란 이식 학회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 뵈 때마다 모두가 다 먼저 손 내밀어 굳게 잡으시면서, 어려운 때에 수고한다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협회는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획대로 보수 교육 과정을 무사히 끝내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수정사 직업 분류 명시 건과 특히 수정소 등록제 폐지를 골자로한 축산법 개정안 의견조회(안)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강력히 건의한 바 우리 협회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견해가 조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협회가 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대다수 회원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려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큰 파도가 되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자연 교배 확산에 대한 대책, 자가 인공수

정 교육과 자가 인공수정기 개발 보급 확산건, 정액대의 현실화로 인한 정액대 인상건등, 회원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도저히 대처해 나갈 수 없는 대단히 큰 파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국내 소값은 하락세로 치달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되고는 있으나, 적체되어 있는 수입 쿼터 물량과 수매 비축된 물량의 해소책이 없다는 불안 심리로, 양축 농민들의 개량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번식우 사육으로 경영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감은 붕괴된 지 오래되고, 번식우도 주로 비육민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회원 모두가 의식의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변화에 적응 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자가 수정이나, 자연 교배로 태어난 송아지와는 확실히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객은 양축 농민입니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 지를 연구하며, 그들과 공존 공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 노력해야만이 우리의 입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량의 첨병이자 개량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조직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분명한 이치를 확실히 자각하고,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우리들의 입지를 당당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일을 내세워 자랑하기 보다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더 알차게 다져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연장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과감히 탈피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개발하여, 남들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가 시도되어야 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계속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합니다.

회원 개개인의 머리속에, 주머니속에, 컴퓨터 파일 속에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하나로 모아, 남들과는 확실히 다른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과 같이 해서는 죽는다"는 각오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나라 소 산업의 개량은 정말 요원해질 것이며, 다시 일어서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다같이 힘을 내어 다시 한 번 뚝뚝 뭉칩시다. 그리하여 수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기록 분석하고 정보화 해서, 우리가 뿌리는 유전 인자의 능력을 우리의 손으로 찾아내어,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종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양축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뿌려 줄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변화가 조금씩 시도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겹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연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 번 해보자"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도전 합시다.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축산업 전반을 위한 도전이요, 양축 농민을 위한 우리의 담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를 위한 우리의 과감한 도전이 곧 우리의 살길이요, 양축 농민을 위한 길이 되며, 국내 소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찾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여행입니다. 우물가에서 승능을 찾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왔고, 또한 추진해 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의 입지는 우리들 스스로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에게 주어진 협회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 주십시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힘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양축 농민과 우리 모두의 더 큰 유익을 위하여, 좀더 크게 보고 좀더 멀리 보며 자력 갱생만이 모두의 살길임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참된 파종꾼"으로 변화 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를, 21세기를 준비하는 희망찬 새해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모두의 건강하심과 아울러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98년 협회 활동상황 보고

- *1월 7일 : 신년 하례회 참석
- *2월 4일 : 음식물 찌꺼기 처리 심포지움 참석 (진흥청)
- *2월 6일 : 축협유우개량 사업소 방문 당면사항 협의
- *2월 10일 : 경기북부 총회 참석 (의정부)
- *2월 13일 : 경남도지회 총회 참석 (창원)
- *2월 18일 : 경기남부지회 총회 참석 (이천)
- *2월 20일 : 충북도지회 총회 참석 (충주)
- *2월 25일 : 본협회 '97년 하반기 감사 및 1/4분기 이사회
- *3월 3일 : 본협회 이성우부장 퇴임
- *3월 4일 : 경북도지회 대의원 총회 참석 (안동)
- *3월 11일 : 수정란 이식 '98년 교육 협의 (축산기술연구소)
- *3월 12일 : 전북도지회 총회 참석
- *3월 19일 : 본협회 '98년 총회 개최
- *3월 25일 : 소전산화 사업 관련 협의회 (농림부)
- *3월 27일 : 수정란 이식학회 춘계 총회 참석
- *3월 30일 : 강원도지회 총회 참석 (홍천)
- *4월 13일 : '98년 상반기 보수교육 대상자 통지서 발송
- *4월 27일 : 축산포럼회 참석 (축산시험장)
- *4월 29일 : 축산박람회 설명회 참석 (서울대학교)
- *5월 7일 : 축산발전 추진위원회 참석 (축산회관)
- *5월 13일 : 마사회 농림부이관 추진 협의회 참석 (축산회관)
- *5월 15일 : '98년 상반기 보수교육 제 1기 (호남지역 - 나주실시)
- *5월 22일 : 수정란이식학회 총회 참석 (대구)
- *5월 22일 : '98년 보수교육 제 2기 실시 (영남지역 - 창령)
- *5월 28, 29일 : '98년 수정사 보수교육 실시 (중부지역 - 수원)
- *6월 10일 : 경북 상주지역지부 현판식 참석
- *6월 12일 : 축산기술연구소 방문 협의
- *6월 29일 : 축산박람회 개최 참석 (서울대학교)
- *7월 5일 : 전북도지회 하계 수련대회 참석 (전북 장수)
- *7월 10일 : 축발기금 기자재 재물감사
- *7월 15일 : 농림부 방문 당면사업 협의
- *7월 22일 : 사무실 이전 (수원, 농촌진흥청 축산 기술연구소 내)
- *7월 27일 : 경기북부도지회 하계 수련대회 참석
- *7월 31일 : 3/4분기 이사회 및 현판식 거행
- *8월 11일 : 농림부에 당면사업 건의 (소전산화 사업에 수정사 계속적으로 활동토록 함과, 대한민국 직업분류에 수정사업 직업분류 명시하여 줄 것, 축산법에 수정소 등록제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 수정사 면허증 발급에 있어 시험을 걸쳐 합격자에게 만 발급토록 강화하여 줄 것)
- *9월 10일 : '98년 하반기 교육대상자 통지서 발송 및 신문공고
- *9월 14일 : 축산발전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
- *9월 18일 : '98년 상반기 감사 수감
- *9월 22일 : '98년 하반기 보수교육에 관한 협조 공문 발송
- *10월 12일 : 홀스타인 품평회 참석 (안성)
- *10월 16일 : '98년 제 5기 보수교육 실시 (호남지역)
- *10월 21일 : '98년 제 6기 보수교육 실시 (영남, 제주지역)
- *10월 23일 : 당면사업 건의 및 회신공문 (농림부) 각도지회 발송
- *10월 29, 30일 : '98년 제 7기 8기 보수교육 실시 (중부지역)
- *11월 3일 : 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 참석
- *11월 5일 : 축산법 개정에 따른 농림부 방문 최종 협의
- *11월 13일 : 수정란 이식학회 총회 참석
- *12월 11일 : '98년 4/4분기 이사회 개최 예정

'98년 보수교육 결과

(단위 : 명)

각 도	예정인원	참 석 인 원		계	비율(%)
		상반기	후반기		
경기도	158	62	20	82	52
강원도	87	27	16	43	49
충청북도	54	11	21	32	59
충청남도	167	42	63	105	63
전라북도	70	12	48	60	86
전라남도	94	38	12	50	53
경상북도	116	24	31	55	47
경상남도	126	45	30	75	60
제주도	8	1	2	3	38
부산광역시	-	1	-	1	-
광주광역시	-	1	-	1	-
인천광역시	-	1	-	1	-
대전광역시	-	1	-	1	-
계	880	262	247	509	58

98 수정란이식 교육 실적(1-10기)

기수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계
강원도	0	0	0	0	0	0	0	0	0	0	0
경기도	2	3	3	2	2(1)	1	0	1	2	3	19(1)
경상남도	0	0	0	0	0	0	0	0	0	0	0
경상북도	3	4	1	5	1	2	1	1	3	4(1)	25(1)
전라남도	0	1(1)	1	1	1	1	0	0	0	0	5(1)
전라북도	0	0	0	0	0	0	0	0	0	0	0
제주도	0	0	0	0	0	0	0	0	0	0	0
충청남도	1	3(2)	3	3(1)	5	6	6	5	2	0	34(3)
충청북도	0	0	0	0	0	1	0	0	0	0	1
계	6	11	8	11	9	11	7	7	7	7	84

()안은 수의사

협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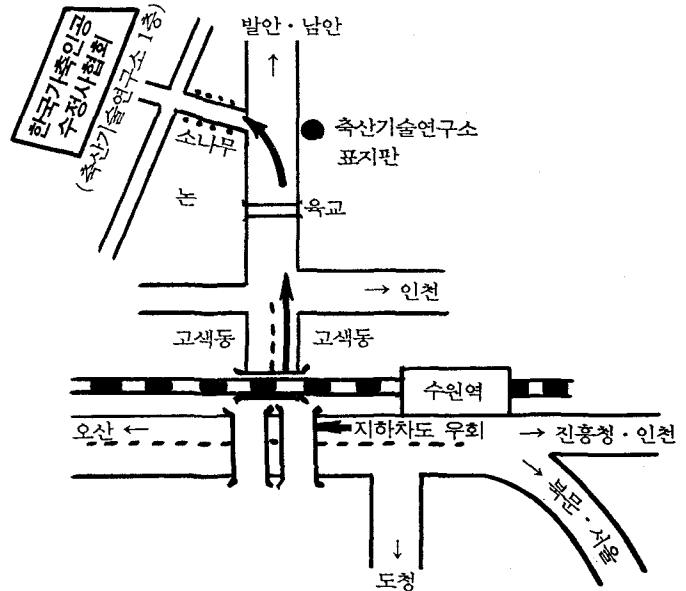
<이전전>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전 화 : (02) 586-9408
 (02) 587-0629



<이전후>

이전일자 : 1998년 7월 22일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64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전 화 : (0331) 296-0637
 (0331) 295-9401



가축인공수정사 대외 활동사항

- ◆ 성기선 - 경기 광주군의회 의원
- ◆ 서양환 - 경북 경주 축협감사
- ◆ 공성수 - 전북 지리산 낙협감사
- ◆ 이기우 - 강원도 양양 축협조합장
-
-

'98년 수정란이식학회 총회에서 수정사님들이 수정란이식과 관련, 발표한 내용 및 명단

- ◆ 서양환 (경북 경주) - 공란우 선정을 위한 유전직 혈통능력 확인 방안 (98. 5. 22 대구 경북대학교)
- ◆ 배상열 (충남 성환) - 한우 및 젃소 수란우에 한우체의 동결 수정란의 이식 (98. 11. 13 서울대학)
- ◆ 정경일 (경남 남해) - 한우체내체의 수정란을 이용한 다태 송아지 생산

시도별 소전산화 바코드 지급실적(추정)

시도별	장착두수	장착비(추정)
서울	630	1,890,000
부산	5,630,619	16,857,000
대구	23,500	70,500,000
인천	19,252	57,756,000
광주	10,590	31,770,000
대전	5,071	15,213,000
울산	43,446	130,338,000
경기	381,354	1,144,362,000
강원	236,977	710,931,000
충북	228,692	686,076,000
충남	390,952	1,172,856,000
전북	256,381	769,143,000
전남	500,635	1,501,905,000
경북	533,961	1,601,883,000
경남	482,733	1,448,199,000
제주	49,308	147,924,000
합계	3,169,401	9,508,203,000

※ 95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임

축산법 개정 법률(안) 의견 제출

○한가수협 제 54 호

○수신처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장,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종축관리부장

- 1) 축정 1530 - 535 (98. 8. 11) 및 종축 51530 - 771 (98. 8. 24)호와 관련됩니다.
- 2) 축산 불황에 따른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 3) 관련호에 의거 본협회와 수정사들의 의견을 모아 별첨과 같이 개정안에 반대함을 제출하오니 종전대로 존속시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 반대의견
제 8조 (교배등의 제한)농림부 장관, 서울특별시 시장, 광역시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채취를 제한 할 수 있다.	<삭제>	개정사유 / 정부안
		농가의식이 높아져 굳이 교배제한 할 필요가 없음.
		반대사유 / 협회의견
		농가의식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이나, 절대 그러하지 않고 있음. 즉 자연종부가 개량에 크게 역으로 차질을 받고 있음 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눈앞의 작은 일에 어두워 최근 극히 성행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함. 즉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움직이고 있는 것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함.
제 18조 (수정사의 면허취득 등) 제 21조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 등)	<삭제>	사유 제 15조 (개정안 제 11조) 수정사 또는 수의사만이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음으로 굳이 등록을 할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나 그렇지 않음.
		반대사유 / 협회의견 본 조항은 일단 자격중만 있으면 현재까지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등록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또한 수정소를 개설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법의 취지에서 본 조항은 어떤 특정인(수정사)만을 가려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상대자인 양축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수익을 높여주며, 정부시책 추진에 일관성있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정보화·체계화를 이끌 수 있는 그 이면을 보아야 할 것이며 규제대상조목으로 보아서는 아닐것임. 즉 요약을 하면 수정소를 등록하게 하므로써 (1)양축 농가를 보호하고 (2)양축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3)정부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가기 위함이며 (4)개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요원으로 양성시키기 위함이며

		<p>(5)그래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고 선도하는 위치로 이끌며</p> <p>(6)교육을 통해서 개량의 정체내지 후진을 막아주면서</p> <p>(7)보다 밀접한 정보화·체계화를 구축, 정부가 바라는 개량의 주도적 주체를 만들어 보다 차원 높은 농가 소득을 꾀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임.</p>
		<p>반대로</p> <p>(1)무등록으로 하였을 경우 과연 정부와 양축농가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p> <p>(2)무등록으로 하였을 경우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누가 어느 통로로 개량사들(수정사)을 점검하고 활동을 체크하며 통계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취합할 것인지 의문이며, 예로서 현재 정액의 공급숫자만 파악하고 있지, 수태율 기타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도 않고 무방비 상태와 같은 상태임.</p> <p>(3)특별한 시설이 없다고 하여서 자격증만 있으면 활동하는 사람들을 자유영업으로 방임한다는 것은 즉 하던지 말던지 이전을 하던지 말던지 하였을 때 견잡을 수 없는 궁지로 행정의 부재를 낳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p> <p>(4)양축농가의 인식이 향상되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궤도를 밟고 정상적인 수지 계산기반이 섰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언제나 소득과 결부 되어있는 장사속 상술이 게재되어있는 상황에서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고 쉽게 안이하 게 이를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가치없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당장은 비정상적으로 뛰는 것이 근본적인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p> <p>예를 들어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과외 공부의 비정상이라는 것을 세상사람 다 이는데 먼저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병역기피가 정상이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즉 지도층이 아니냐? 바로 국민의 인식이 향상이 되고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여서 규제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삭제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으로 진단됩니다.</p> <p>수정사들을</p> <p>@등록이나 허가사항으로 좀 더 규제조항이 있을수록 그것은 바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이익을 주며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리고 싶습니다.</p>

한우개량단지 지도원의 인공수정업무 자제요청 건의

- ◎한가수협 제 63 호
- ◎수신처 : 농림부 축산국장
- ◎참 조 : 축산정책과장

- 1)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97. 11. 8)와 관련되고 축협개량사 (총괄) 3150 - 19 (98. 2. 10)호와 관련됩니다.
- 2) 97년부터 불어닥친 축산 전반의 어려움, 특히 소산업 문제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를 타개코자 노심초사 하시는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 3) 또한 본 협회와 수정사 모두는 이 아픔을 함께하고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축개량의 역군으로서 제일선에서 첩병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정부시책의 홍보 요원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4) 관련지침서와 축협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한우개량단지내 지도원, 보조원의 임무는 한우개량단지 사업에 전담 (심사, 등록, 등록우의 발육 및 번식능력 조사·지도·기록유지등)토록 하고 있는 바
- 5) 일부 시·군 조합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 업무에만 전담토록하게 하고 있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지도원이 인공수정을 하고는 수정증명서 발급에는 타인의 명의로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은 조합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히 중앙의 개량사업 자체를 이탈, 무시내지 망각하고 자행하는 처사로서 우려되는 바
- 6) 이를 강력히 자제시켜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특히 강원, 충북, 전북도관내 조합에서 자행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수정사들의 직업분류 명시 의뢰

- ◎한가수협 제 53 호
- ◎수신처 : 농림부 축산국장
- ◎참 조 : 축산정책 과장

- 1) 작년부터 불어닥친 IMF한파와 이에 따른 축산업계의 불황을 타개코자 노심초사 하시는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 2) 본협회와 수정사들은 나름대로 정부시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개량사업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그리고 아무 불평없이 지역에서 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3) 축산법 제 2장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에서 법 제 15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 16조 (수정사의 면허) 제 17조 (수정사의 교육) 제 18조 (수정사의 면허취득 등) 제 21조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 등) 제 22조 (수정소의 등록취소 등) 제 25조 (수정사등에 대한 감독 등) 제 6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 64조 (벌칙) 등등 법상에 수정사의 용어와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자격증을 부여받고 또한 개업을 하고 있는 가축 인공수정사들이고 수정소인데
- 4) 대한민국 직업 직종 분류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축산업에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존재로 되어있는바
- 5) 해당 통계청에 조치를 취하시어 “한국표준 직업분류” 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끝.

농림부 건의 회신

- ◎문서번호 민)축정 51507 -75
- ◎시행일자 1998. 8. 26. (5 년)
- ◎수 신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1. 한가수협 제 53호 ('98. 8. 13)와 관련됩니다.
 2. 관련호에 의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가축인공수정업의 별도 분류 요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를 통하여 불임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그리아시고
 3. 귀회에서도 의견제시 및 설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요청 내용 1부. 끝.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 신설 또는 분리되어야 할 분류 및 직업명

현행 직업분류		개정요구내용	개정요청사유
분류번호	직업명		
0143	축산관련 서비스업	분리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세세분류신설

2. 업무관련 직종명 및 해설자료

연관산업	직 종 명	직 종 해 설
A. 농업,수련업 및 임업	정액등 처리업	○수가축으로부터 정액을 채취하고, 희석, 냉동,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정액의 이동, 보존, 경제성을 높이는 업 - 암가축의 난자와 수가축의 정자를 생체내 또는 시험관내에서 결합시켜 수정란을 만든 후 상기와 같은 처리를 하는 업도 포함됨 - 축산법 제 19조 (정액등 처리업의 허가)와 관련됨
	가축인공수정업	○정액등 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정액, 수정란 등을 가축생산을 위하여 암가축의 생식기에 주입하는 업 - 축산법 제21조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증)와 관련됨
	축산경영상담업	○축산경영상 발생하는 문제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담, 자문(Consulting)을 하는 업
	달리분류되지 않은 축산관련 서비스업	

3. 한국 표준직업분류 활용 업무

- 축산시책 추진, 영업분류, 세무등 행정능력 향상
- 업계종사들의 지위향상 및 자긍심 제고

엔자프로스트 (ENZAPROST)

PGF2 α 제제로 강력한 황체용해작용으로 발정, 분만을 촉진합니다

엔자프로스트와 유도분만

축 종	주사 시기	투여량	분만시기
소	임신 270일 이후	5ml	평균 3일후에 분만
돼지	분만 예정일 3일 이내	2ml	평균 28-30시간후에 분만

1. 원하는 시간에 분만을 유도하여 축주부재시에 발생하는 난산, 사산 및 자돈의 압사 (10%)를 줄일 수 있으며 질병의 오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이나 명절또는 밤중에 분만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인건비 및 노동력을 덜 수 있습니다

프리드 (PRID)

1. 소의 주요 번식장애의 치료 (난소위축, 난소기능부전, 난소낭종, 영구황체등)
2. 특히 저수태우에 대한 효능은 다른 어떤 호르몬제보다 탁월합니다
3. 인공수정시 수정율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인력사용이 가능합니다
4. 발정관찰이 필요없습니다
5. 프리드는 특히 생리적 공태기(분만~재임신)를 단축 시킵니다

구 분	평균 생리적 공태기 (일)	
	한 국	유 럽
PRID 투여군	91	75
대조군	133	90

프리드를 사용하면 평균공태기는 약 2주기(40일)가 단축됩니다
 *유대만 48만원의 이익발생 (600원/Kg, 20Kg/두, 공태기40일단축)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지정업체 (KVGMP)

(주)제일화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7-7 우진빌딩
 TEL:(02)586-0482 ~ 5, FAX:(02)588-3691



社団法人 韓國家畜人工授精師協會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64
 (축산기술연구소 내)
 TEL : (0331) 295-9401 / 296-0637
 FAX : (0331) 296-0637

☐☐☐☐-☐☐☐☐

☐☐☐☐-☐☐☐☐